

연중 제5주일

기도서 344면 (다해)

제1독서: 이 사 6.1-2a. 3-8.

제2독서: I 고린 15.1-11

복 음: 루 가 5.1-11

# 순정이

“시몬 베드로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서 떠나 주 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루가 5.8).

## 강론

## 소리

### 신앙의 조건

박 기준신부/순창 천주교회

우리는 ‘신앙’이라는 말마디를 수 없이 들어왔고 또 사용하고 있다. 흔히들 신앙을 정의할 때 ‘하느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을 한다. 그렇다면 하느님을 믿는 조건은 무엇일까?

오늘 복음에는 베드로의 끝없이 겸허하고 아름다운 인간성이 나타나 있다. 주님에 대한 그의 순종심이 잘 표현되어 있다. 밤새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려 했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쳐라”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였기에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었다.

베드로 자신은 어부였으나 예수는 젊고 또한 목수라는 점에서 베드로의 예수께 대한 무조건적인 순종은 우리들에게 좋은 귀감이 아닐 수 없다. 집짓는 일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을지 모르나, 고기잡는 일이라면 자기가 스승인 것이다. 어부가 목수의 가르침을 받고 고기를 잡는다는 것은 실로 순종하기 어려운 시험이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의 모험이요, 실제적으로 손해를 각오해야만 했던 것이다. 실로 베드로는 순종할 수 없는 조건들이 많았다. 그러나 순종했다. 하느님은 때때로 우리를 불합리한 궁지로 몰아 넣으시고 우리의 순종심을 시험하시는 듯하다. 순종이 신앙의 근본 조건이기 때문이다. 실로 주님에 대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신앙의 조건이요, 본질이다. 어부생활로써 일생을 살아오다시피한 베드로의 경험으로는 이제 고기를 다시 잡게 되리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물을 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이것이 곧 순종하는 겸허한 마음이요, 신앙의 기본 조건이다. 자기 주관을 굽힐 줄 모르는 사람, 자기 개성이 너무 강해서 남의 의견에 따를 줄 모르는 사람, 자기 경험만 가지고 또는 자기 판단력만 가지고 그것을 절대시하는 사람은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 자신의 생각보다 주님의 말씀에 우선권을 둘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결코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없다.

교회는 주님의 일터이다. 여기에는 여러 계층의 다양한 사람이 필요하다. 될 수 있는대로 유능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가장 필요한 사람은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다. 자기를 우상화하고 자기를 과신하거나 자기 집념을 굽힐 줄 모르는 사람은 주님의 소명을 받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에 합당치 못하다. 주님의 명령에 아무런 이의 없이 자신을 내맡기는 순종이야말로 우리 신앙인들이 갖추어야 할 자세이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이제부터 사람을 낚을 것이다. 아멘.

### 펼 펼 끊는 아랫목에 찬 손을 녹이고 싶다

“엄마! 몇 밤 자면 설이야?”하며 고사리 손을 내밀던 생각이 난다. 온 세상은 흰 눈으로 포근히 덮히고 장독 위에 쌓인 눈더미가 ‘묘똥’ 만큼이나 높았던 고향집 초가가 눈에 보이는 듯해서 마음을 설레이게 한다. 모처럼 큰집 작은집은 가족이 함께 모여 미역국 속에 이따끔씩 풀어진 닭고기를 맛있게 건져 먹으며 웃음 꽃을 피우던 설날……。 제사상에 차려진 사과 한 개가 그렇게도 먹고 싶어 넘죽 넘죽 절을 하면서도 행여 그 사과를 형에게 빼앗길까봐 초긴장하던 어린 시절이 이젠 먼 옛날 남의 나라 얘기처럼 느껴진다. ‘설덕’에 얻어 입은 검정 학생복을 자랑하고 싶어 밥술 놓자마자 이웃집 세배를 가노라면 “요놈들...아직 조반상도 안 물렸다.” 하시며 드시던 밥상을 밀치시고 정좌하시던 어르신네들이 얼마나 높아 보였던가! 그런 어르신네들의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 할 일이었다.

“설” 명절!

듣기만해도 하얗게 눈덮인 고향산천이 눈에 보인다.

그 좋고 깨끗한 명절을 왜 없애려 하는가? 눈으신 양반들 기억에는 고향땅 하얀 초가집이 그저 춥고 배고픈 악몽으로만 남아 있던 말인가?

난 가고 싶다! ‘군불’ 지펴 까맣게 타 구멍이 난 고향집 펼 펼 끊는 아랫목에 찬 마음 찬 손을 녹이고 싶다. 비록 가난해도 그때처럼 살고 싶다.

### 순정이 산책



# 1989년 사순시기 담화문

— 교황요한바오로 2세 —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마태 6.11). 예수께서 당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둘째 부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거듭거듭 열렬히 바치고 있는 주의 기도 후반부는 바로 이러한 간청으로 시작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드리는 이 간청은 커다란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이루는 모든 민족의 모든 사람들이 바치는 것이지만, 그 의미는 저마다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기도는 조용하고도 신뢰에 찬 청원의 음조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식량이 없어 육체적인 굶주림마저 채우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치는 이 간청은 비탄과 고통에 찬 울부짖음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여, 본인은 커다란 관심과 희망을 안고 1989년 사순시기의 묵상 주제로서 그리고 사랑과 연대의 사도직 활동을 위한 주제로서, 세상의 굶주림이라는 이 문제를 여러분 앞에 내놓습니다. 먹을 것을 가진 여러분이 하는 관대하고도 자발적인 단식은 끊임없이 먹을 것을 구하여야만 하는 다른 수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먹을 것을 가진 사람들이 이 사순시기 동안에 하는 단식, 그리스도인들의 풍요로운 전통인 이 단식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가진 것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사람들과 연대하여 여러분이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도록 한층 더 완전하게 여러분의 마음과 정신을 열어 줄 것입니다.

이 세상 거의 모든 나라에서 수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에 고통 당하고 있으며, 어떤 대륙이나 나라에서는 그 굶주림이 한 층 더 가혹하게 집중되어 대다수 국민들을 괴롭히며 그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방의 식량난은 극히 복합적인 이유로 인하여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모든 사람들의 공동 협력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금세기에 들어 우리는 과학 기술의 진보를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일이지만, 우리는 인간다운 모습으로 진보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식량이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비극을 눈앞에 두고 무관심하게 수수방관 할 수는 없습니다. 최저 생존에 필요한 식량도 채 못먹고 살아가야 하는 그 사람들은 결국 자신들의 고유한 인간발전을 가로막는 거의 극복할 수 없는 장애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본인은 모든 신앙들과 더불어 한 목소리로 우리 모두의 아버지께 간청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마태 4,4)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물질적인 식량 또한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실제로 굶주린 군중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신앙에는 구체적인 행동이 뒤따라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굶주림이라는 비참한 실상을 제대로 깨달아,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계획을 착수하고 기존의 사업을 후원하며,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과 더불어 가진 것을 함께 나누고 식량의 자급 자족 계획을 강화시키도록 본인은 간곡히 권유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굶주림과 싸우는 모든 가톨릭 단체들은 물론 기아 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든 정부 및 민간 단체들이 끊임없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 주도록 격려하고자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그럼으로써 당신 자녀들 가운데서 어느 누구에게도 지상의 열매가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그 어느 누구도 날마다 먹을 빵이 없어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게 하소서. 또한 우리 모두가 연대성 안에서 당신의 저 무한한 사랑으로 가득 차 당신이 우리에게 자비로이 주시는 그 빵을 나누어 주는 법을 배우게 하시며, 세상에서窮없고 보잘것 없게 보이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밥상 한 자리를 내어 놓을 줄 알게 하소서. 그리하여 언젠가 우리 모두가 떳떳하게 당신의 천상 식탁에 함께 앉을 수 있게 하소서.

## 두뇌 및 정신력의 경이적 활용법 / 정신과학세미나 안내

- 2월 12일(일) 오후 3시 · 2월 15일(수) 오후 7시
- 전주가톨릭센터 대강당 (참가비: 1,000원)
- 주최: 한국정신과학연구원 ● 연사: 金重培 博士(말시아노)
- 효과: 선상증진, 분해해결, 고도의 두뇌 및 정신활용, 적극적 사고배양, 인간관계의 성공

더불어사는 기업 —

기념품 상패 판촉물

간판 네온사인 프랑카드

**무지개광고기획**

代表 金昌植 (스테파노)

☎ 전주 (0652) 82-3050

☎ 84-7772, FAX 82-3050

잡 간!

설날과 신앙인의 제사

음력 정월 초하룻날을 세수(歲首)·원단(元旦)·원일(元日)·신원(新元)이라고도 하며, 근신·조심하는 날이라 해서 한문으로는 신일(愼日)이라고 쓴다. 조선시대에 의정대신(議政大臣)들은 모든 관원을 거느리고 대궐에 나가 새해 문안을 드리고, 전문(篆文)과 표리(表裏; 거친 무명 또는 흰 명주)를 바치고 정전(正殿)의 뜰로 나가 조하(朝賀)를 올렸다. 이날 사당에 지내는 제사를 차례(茶禮)라 하고, 아이들이 입는 새 옷을 세장(歲粧)이라고 하며 어른들을 찾아 뵈는 일을 세배라 한다. 세찬으로는 떡국을, 세주로는 조백주·도소주가 나오는데, 떡국은 손님 대접에도 쓰고 제사에도 쓰므로, 세찬에 없어서는 안될 음식이다. 또 시루떡을 찌서 올려 놓고 신에게 빌기도 하고, 삭망전(朔望奠)에 올리기도 한다. -이렇듯 우리 민족은 아름다운 풍속이 전통적으로 뿌리내려져 왔다. 집안 어른들을 찾아뵈고, 돌아가신 조상들을 기억하며 차례를 지냄으로써 조상과 부모에 대한 존경심과 효심을 다져왔다. 한때 천주교회에서는 제사나 차례를 지내는 것이 우상숭배라고 하여 금지시킨 적이 있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적합하면서도 민족전통이 살아있는 차례예식을 만들어 각 가정에서 차례를 지낼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에 가톨릭적인 차례예식을 준비해 본다.

☛ 차례 예식

- 1 성호경
- 2 성가: 가톨릭 성가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부른다. (예를들어 28장, 50장, 59장, 423장등)
- 3 독서: 아래 제사하는 성서 구절중 하나를 선택하여 봉독한다.  
1) 요한14, 1-14 2) 요한15, 1-12 3) 요한17, 1-26 4) 루가2, 41-52
- 4 가장(家長)의 말씀 위령문 봉헌
- 5 큰절: 서열순으로 영전에 큰 절을 드린다(남여 구분없이)
- 6 사도신경, 부모를 위한 기도, 가정의 위한 기도(가톨릭 기도서 참조) 등을 바친다.
- 7 참석자들은 모두 신자들의 기도를 바친다.
- 8 성가: 가톨릭 성가 중에서 하나를 택한다.(77장, 372장, 445장, 481장 등)
- 9 주의기도를 함께 바친다.
- 10 식사: 차례 음식을 나눈다.(음복-사랑과 일치의 식사)
- 11 성호경

※ 전통적인 연도(성교 예규)를 바칠 수도 있다.

교 구 소 식

- ※ 박정일 주교님 환송미사 2월13일 오전10시30분 장소-중앙성당 교구사제단 공동집전
- 환송식과 송별연: 미사후 가톨릭 센타 회의실과 강당 신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 회개와 보속을 위한 사순절 새벽미사
- 2월8일(재의 수요일)부터 -일요일 재외 장소-숲정이(해성학교) 시간-오전6시
1. 12일(일) 본당교육·홍보부장·차장 연수회: 오전10시 가톨릭 센타
  2. 19일(일) 본당 청소년부장·차장 연수회: 오전10시 가톨릭 센타
  3. 테클라 성소모집: 성바로로 딸 수도회(성바로로 서원 2층) 오늘오후2시 수도 성소에 관심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4. 효자 제3천주교회 주수·전화번호: (560-240) 전주시 효자동 1가 70-3 전화-사제관(6-2335) 위치-효자 주공아파트 3단지 후문(안양당쪽) 옆

요십이(809) 김병오



정기총회 소집공고

신원년 제21주 및 제32주에 의거 제16차 정기총회를 아래와같이 개최코자 소집공고하오니 조한원께서는 빠짐없이 참석바랍니다.

아 래

1. 개최일시: 1989. 2. 18(일) 오후 1시30분
2. 개최장소: 천주교 전주교회
3. 부의안건: 8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의10건

● 기념품 증정  
※ 총회참석시 조한원부장, 주민등록증, 인장지참

1989. 2. 1

전주대건신용협동조합

이사장직무대행 김 후만

고도의 기술, 선명한 색채재현  
25분 완성

전북칼라현상소

대표 오 희웅(암부로시오)

전주시 고사동 1가 인남빌딩 남쪽

(오거리) ☎ 83-5335

황수경산부인과

이 의 사 황수경 (크리스티나)  
산부인과 전문의 이 승렬 (엘 리 아)

관동로 서울신탁은행 건너편골목

☎ 84-7272

"발표력을 기릅시다. 응변을 배웁시다"

'89.유치부 원아모집. 방학특강반모집

호남유년종합학원 (구 서중로터라) ☎ 3-3284

새호남유년종합학원 (전주역 앞) ☎ 4-3948

효자유년종합학원 (효자명동 APT 옆) ☎ 83-8331~2

원장 유 병철 (베드로) · 원감 박 경애 (인첼라)

성체는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생명의 빵' 입니다.

#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 노송

사제관 82-9663 주임신부 이재후  
사무실 82-9661 사목회장 노인석  
수녀원 82-9662

1. 설날 위령합동미사: 5시30분, 10시30분 가정마다 전영물을 위하여 연미사를 봉헌합니다.
2. 재의 수요일: 2월8일 오전5:30 오후7:30 단식과 금육제 불을 불우이웃을 위하여 성미 주머니에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3. 사목회 월례회: 10월 7:30 건축문제를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4. 박수녀님 휴가: 6일~17일 5. 예비자 입교예식: 12일 10시30분 6. 꾸리아 월례회: 12일 공식미사후 7. 교육부장·차장, 홍보부장·차장 연수회: 12일 10시 장소-가톨릭센터
8. 은인께 감사: 김중화(마르코) 성당그릇71,340원 청년 피정원 도와주신분 고원창(말체라도) 100,000원
9. 새신부님 물적예물 모든 신심단체의 예물과 교우들의 정성(1,644,800원)에 감사드립니다.
10. 청년성가대 정기총회: 12일 오후6시

## \* 복사

사제관 86-3453 주임신부 김기수  
사무실 86-3455 사목회장 신일균  
수녀원 86-3454

- ※ 사순절: 회개와 보속의 시기-재의 수요일-8일 저녁7:30 제의예절 및 십자가의 길(단식과 금육) 십자가의 길-매주 금요일 저녁미사후 금육 매 금요일
- ※ 사순절 실천표와 저금통을 사무실에서 가져가세요.
1. 구정합동 위령미사: 6일 06:30, 10:30 미사
  2. 미사 시간변경: 7일부터 저녁미사 7:30 아침미사 6시
  3. 자모회: 9일 오전10시, 4. 안나화: 9일 오전10시 5. 여성분과회: 11일 오전10시 6. 울트레아: 12일 공식미사후
  7. 꾸리아: 12일 오후2시 8. 빈첸시오회: 12일 꾸리아후
  9. 청년회: 12일 저녁미사후 10. 대견회: 12일 공식미사후
- 축 결혼: 11일 12시 신랑-김만수 요셉 신부-이연순양  
차주전례: 해설-이강남 독서①조성호 ②신형순  
봉헌-조성호씨 부부

□ 지난해주봉헌금: 450,430원 □ 교무금: 867,050원

## \* 상관

사제관 82-5079 주임신부 양석현  
사무실 82-5434 사목회장 양순천

1. 설날 합동 위령미사: 6일(월) 오전10:30
2. 가정방문: 8일-백암 내정 9일-남관 복제 10일-서당
3. 성가정회: 다음주 공식미사후
4. 교무금 납부의 날: 매월 첫주(오늘)
5. 재의수요일: 8일(단식과 금육) 성지가지를 가져오세요.
6. 과수원 농지 계약 신청: 갖있으신분 속히 신청하세요.
7. 감사: 송정이 현금-김옥자(1구좌)

□ 지난해주봉헌금: 188,870원 □ 교무금: 74,000원  
□ 구라주일금: 80,770원

## \* 서학동

사제관 84-8307 주임신부 서석기  
사무실 86-4929 사목회장 김환홍  
수녀원 84-2276

- ※ 초 축성: 오늘 공식미사중  
※ 설날 명절미사 시간: 오전10시30분  
※ 재의 수요일(2월8일): 단식과 금육, 재의예식 저녁미사
1. 회의: 자모회-2월 15일(수)
  2. 알림: ①주일학교 개학미사-2월4일(토) ②주일학교 졸업식-2월11일(토)

□ 지난해주봉헌금: 448,140원 □ 교무금: 351,000원

## \* 전동

사제관 82-6232·82-7245 주임신부 이수현  
사무실 84-3222·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김선태  
유치원 84-8347·레지아 83-5085 사목회장 안득수

1. 구정합동 위령미사 예물을 오늘까지 사무실에서 접수합니다.
2. 재의 수요일: 2월8일(수) 성지가지를 7일(화) 오전까지 사무실에 가져오세요.
3. 사순기간 동안 저녁미사 30분전에 십자가의 길이 있습니다.(주일 저녁미사전에도) 4. 자모회: 다음주 9시미사후

5. 돈보스코회: 다음주 공식미사후
6. 구역봉사자: 다음주 저녁6시
7. 반기도회: 14일(화)-17일(금) 구역별로 실시함
8. 예비자 인도서약서 봉헌: 오늘 미사중에 봉헌바랍니다.
9. 유아세례: 11일(토) 오후3시
10. 전주대건신협정기총회: 2월18일(토) 오후1시 장소-전동성당
11. 금주보수 헌금: 1,418,000원 총액7,958,000원

##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주임신부 박병준  
사무실 83-8245 사목회장 김광환

1. 신축헌금 신입자: 정재현 3만원 2. 닉 695,000원
3. 설날 명절미사: 오전5시30분, 10시, 분(미사예물 5일까지 접수바랍니다) 4. 재의 수요일: 8일(수) 재의예식 오후7시
5. 가정방문: 9일(목) 전-7,8만 후-9,10,11만 10일(금) 후-12만 제대회: 공식미사후
6. 형제회: 8일(수) 전10시-5,6만 10시-7,8만 11시-9만 후2시-4만 2시-2만 3시-14만 9일(목) 후7시-1만 8시-27만 8시-28,29만 10일(금) 후7시-3만 8시-10,11만 8시-13만 7. 금주전례: 해설-문치구 독서①강세형 ②김옥희 봉헌-고광필 부부

차주전례: 해설-정순태 독서①임순달 ②유성애 봉헌-라훈식 부부

□ 지난해주봉헌금: 319,680원 □ 교무금: 256,500원  
□ 2차헌금: 146,420원 □ 자선헌금: 56,840원  
□ 신축금신입총액: 142,984,836원

## \* 효자3

주임신부 조정오  
사목회장 황희삼

- ※ 축 효자 3성당 창립일 1989년 1월 26일: 그동안 물질양면으로 협조해 주신 효자본당의 신부님과 교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1. 미사시간 안내: 주일-새벽6시 오전10시 저녁7시 화요일-저녁7시 수요일-새벽6시 목요일-저녁7시 금요일-어머니미사 10시 토요일-어린이 특전미사 오후3시 중고학생특전미사 오후6시
  2. 주일 10시미사예배는 미사시작 5분전까지 뒤에 마련된 바구니에 미리 봉헌금을 봉헌해주시요.(봉헌행렬없음)
  3. 설날 합동 위령미사: 2월6일 오전10시(미사예물 사무실에 접수)
  4. 재의수요일 2월8일(단식과 금육) 성지가지를 사무실에 가져오십시오. 2월10일 금요일(금육)

□ 지난해주봉헌금: 367,860원 □ 교무금: 486,000원 (월한년)  
□ 중고특전미사봉헌금: 8,050원 □ 교무금미수금: 100,000원

## \* 효자동

사제관 83-3841 주임신부 유종현  
사무실 84-0915 사목회장 문대현  
수녀원 84-4804

1. 구정합동 미사 시간안내: ①10:30 ②후7시 \*연미사 생미사(사무실에 접수)
2. 재의 수요일 미사: 금주 수요일 오후7시(금육 단식)
3. 성모 승천반 예비자 교리시간 안내: ①월10시30분(4호실) ②목 후7시30분(4호실) \*1인1예비자 인도합니다.
4. 1인 1단체 가입운동(2월중)
5. '한 마음 한 몸' 운동, 성미 성금을 모아 불우한 이웃에 전달합니다.
6. 모임안내: ①안드레아회-다음주 오후7시 미사후 ②보니카회, 데레사회-다음주 수11시 ③분당 울트레아-다음주 11시 미사후 7. 청소년담: 금주-성당부근 다음주 삼천주공 A동편
7. 꾸리살료 수료: 전홍빈

□ 지난해주봉헌금: 723,480원 □ 교무금: 948,000원  
□ 미수금: 266,000원 □ 구라주일 특별헌금: 431,590원

## \* 효자우전

사제관 86-3712 주임신부 박창신  
사무실 86-3711 사목회장 김용무

1. 사목회 월례회의: 오늘 저녁 미사후
2. 꾸리아 월례회의: 11일(토) 오후1:30
3. 독배공소 미사: 10일(금) 오후3:00
4. 구정 합동미사 예물 봉헌은 오늘까지 사무실에 접수바랍니다.
5. 구정 합동미사 시간: 오전10:00 오후7:00
6. 수녀원 비품 봉헌 요망
7. 재의 수요일 2월8일: 금육과단식 사순절 동안 금요일은 금육일
8. 수녀원 비품봉헌 내력: 신건수10,000 박성수120,000 한나희30,000 무궁화반23,000 알남근60,000 정규환147,000
9. 금주의 전례: 해설-조신욱 독서①김광태 ②분옥신 기도-알남근 조신욱

차주전례: 해설-노옥자 독서①박채진 ②강정숙 기도-송하영 한명희

□ 지난해주봉헌금: 384,040원 □ 교무금: 395,000원